



2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록커스트리힐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LPGA 대회에서 1위에 오른 장정(26·기업은행)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월드컵 16강 탈락 아쉬움’ 그린서 싸~악 장정 LPGA 웨그먼스 우승

한국 축구의 독일 월드컵 16강 탈락의 아쉬움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태극 남자군이 시원하게 씻어냈다.

26일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록커스트리힐골프장(파 72·6천22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 LPGA 최종 라운드에서 장정(26·기업은행)이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8월1일 브리티시여자오픈 제패 이후 LPGA 투어 정상급 선수로 떠올랐던 장정은 이로써 1년이 채 안돼 두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장정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는 올해 열린 LPGA 투어 대회 15개 가운데 8개 대회를 석권, 승률이 53.3%에 이르렀고 지난달 29일 한희원(28.힐라코리아)의 코닝클래식 우승 이후 4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을 보였다. 우승 상금 27만달러를 받은 장정이 상급랭킹 7위(65만81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상급랭킹 10위 이내에도 5명의 한국 선수가 자리를 잡았다. 장정은 또 1977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첫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라타 그라나다(파라과이)가 장정에 1타 뒤진 12언더파 276타로 준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장정과 챔피언전에서 ‘몽골 대결’을 벌인 김미현(29·KTF)은

## 최종 13언더...생애 두번째 정상 한국, 올 15개대회 중 8개 우승

10언더파 278타로 5위에 올라 3개 대회 연속 ‘톱10’에 만족해야 했다. 박희정(25·CJ)이 공동6위(9언더파 279타)를 차지했고 한희원과 이선화(20·CJ)가 공동 10위(8언더파 280타)에 올라 5명의 한국 선수가 ‘톱 10’에 포함됐다.

이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장정의 우승은 쉽지 않았다. 1타차 2위였던 김미현이 초반에 3개의 보기를 쏟아내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그라나다와 브리티니 램(미국) 등 2명의 ‘투기’가 경기 막판까지 장정을 몰고 늘어졌다. 장정이 홀마다 버디와 보기를 교환하며 좁혀 치고 나가지 못한 사이 램은 한 때 1타차 선두로 앞서 나가기도 했다.

10번홀(파4)에서 핀에서 멀지 않은 그린 주변에서 친 세번제삼이 끊어 1타를 잃으면서 램에 1타 뒤진 장정은 그러나 13번홀(파3) 버디로 공동선두에 복귀한

뒤 램의 잇따라 드라이버 티샷 실수를 틈타 2타차 선두로 돌아섰다. 하지만 15번홀(파3)에서 벙커에서 친 두번제삼이 홀에서 5m 거리에 떨어진 바깥에 1타를 잃은 장정은 1타차 불안한 선두로 3개홀을 버텨야 했다.

앞서 플레이를 펼친 그라나다가 18번홀 버디로 장정과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장정으로서의 남은 3개홀에서 1타도 줄이지 못하면 연장전, 타수를 잃으면 역전패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린 셈.

그러나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투어 7년차 장정의 기록과 승부 근성은 17번홀(파5) 버디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티샷이 러프에 떨어지자 아이언으로 페어웨이로 꺼내려는 것이 다시 러프에 빠졌지만 장정은 깃대를 맞히는 절묘한 어프로치샷으로 1m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다. 17번홀 버디로 1타차 단독 선두로 나선 장정은 18번홀을 무난하게 파로 막아내고 동료 선수들의 샵페인 세례를 받았다.

장정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참고 기다린 덕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대주건설 ‘골프장 체인화’ 선도

대주건설이 2009년까지 전국에 총 9개에 이르는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나 골프·레저 전문기업이 3~4개 골프장을 묶어서 운영하는 예는 많지만 대주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프리미엄급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예는 드물다.

대주건설이 건설중인 18홀 골프장 시세를 500억원으로 단순 계산할 때 9개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면 자산가치만 7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기히 ‘골프장 부자’라고 부를 만 하다.

## 2009년까지 총 9개 216홀 건설 추진 1개 회원권으로 전국에서 라운딩 가능

이미 아파트 브랜드 ‘피오레’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대주건설이 레저사업 공략에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대주측은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해 1개 회원권으로 지역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라운딩이 가능한 ‘골프장 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건설 레저사업본부 서영일 상무는 “향후 레저사업에서 골프장 1~2개를 갖고서는 경쟁력이 없다”며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입지를 다양화해 회원들이 계절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재호 회장>

서 상무는 “브랜드를 앞세운 골프장 체인화가 성공한다면 회원권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측은 골프장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통상 공사가 30% 진행되면 판매를 시작하는 회원권을 완공 이후 코스 공개와 동시에 시장에 내놓을 정도로

### ■ 대주건설이 보유 또는 추진중인 골프장 9곳

이름	위치	면적	홀규모	진행상황
담양대덕CC	전남 담양군 대덕면 비치리 산1-2	67만1108평	36홀(노수동 1홀, 펜션 30기)	토지매입 진행중
칠곡대덕CC	경북 칠곡군 가산면 화하리 1206-1	67만3733평	27	단독주택 조성중
합평대덕CC	전남 합평군 학교면 곡창리 6-21	28만6564평	18	회원제 운영중 9홀 건설 인허가 진행중
동두천대덕CC	경기 동두천시 하행읍동 산33-1	38만723평	18	회원제 운영중

프리미엄급 골프장 건설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같은 ‘골프장 체인화’에는 대주그룹 오너인 최재호 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평소 골프장사업에 관심이 많은 최 회장은 국내에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면서 향후 몇년 이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잃을 것에 대비한 ‘골프장 체인화’ 아이템을 제

시했으며 건설중인 골프장 설계와 현장을 직접 챙기기로 유명하다.

지난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은 올해 6월 현재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작년 그룹 연매출이 2조원을 넘겨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순위 50위권을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진우는 아프고 중범이는 벤치 신세” KIA 4강 진입 ‘글쎄요’

## ■ 금주의 프로야구

“이번주 4위권 진입...글쎄요?”

KIA는 2006 독일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주동안 4승 7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5위로 내려앉았다. 선두 삼성과는 8.5게임차, 4위 두산과는 2.5게임차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열린 한화와의 3연전에서 모두 1점 차로 패하면서 팀 분위기가 최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에이스 김진우와 강철민의 회복속도마저 더디다. 타석에선 ‘주포’ 홍세원이 우측 무릎 통증으로 재할 훈련중이고 ‘용병 타자’ 서브넉의 방출에 이어 ‘주장’ 이종범도 컨디션 회복을 이유로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IA는 주초(27일~29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잡고 4위권에 재진입하겠다는 각오지만 ‘차.포’를 모든 때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동상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현재 7위에 랭크된 롯데는 이번 KIA전에 팀내 에이스 삼촌사인 이상목, 염종석, 장원준 등을 마운드에 올릴 것으로 전망

다. 롯데는 여기에 최근 타격감을 되찾은 호세·이대호·마이로우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폭발력도 위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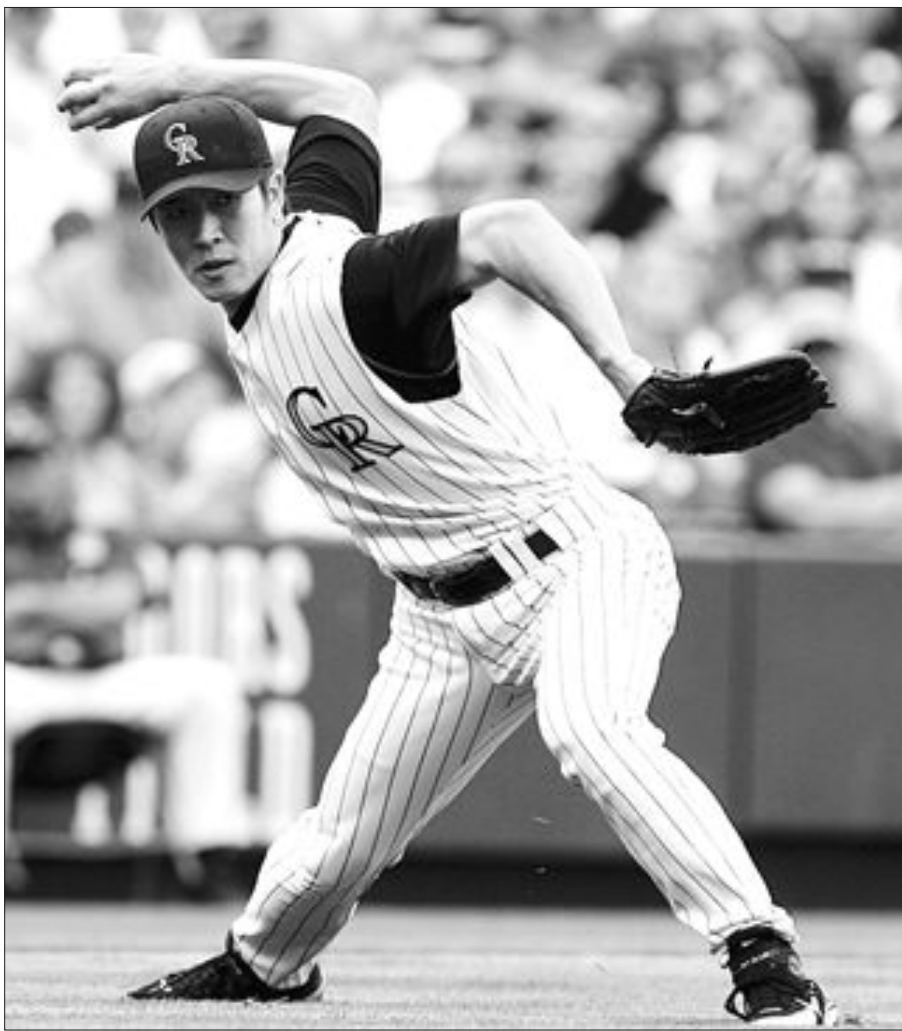
KIA도 이상화, 한기주, 그레이싱어 등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지만 무거운 상태에서 다소 떨어진다. ‘에이스’ 그레이싱어는 최근 선발 출장한 3경기에서 모두 패하는 등 제구력이 불안하고 이상화도 선발로서는 안정감이 부족하다. 중간계투인 윤석민도 호트러진 선발 마운드 탓에 등판 이닝이 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규를 중심으로 장성호, 김상훈 등이 방방이 감을 조절하고 있고 롯데와의 올 시즌 전적도 5승 3패로 우위에 있어 마운드만 버텨준다면 해볼 만 하다.

KIA가 주초 롯데전을 잘 넘기고 나면 주말(26일 30일~27일 2일)에는 특급 중간리리인 권오준(8승)과 구원부진 단독 선두(24세 이브)인 마무리 오승환이 버티고 있는 ‘최강’ 삼성과의 혈투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도 올 시즌 9차례의 맞대결에서 4승 4패 1세이브로 호각세인데다 광주 홈경기라는 잇점이 있어 다행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콜로라도 로키스의 김병현(27)이 26일 새벽 콜로라도주 덴버 쿼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인턴리구 홈 경기에서 호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병현 7이닝 무실점...시즌 5승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잡수할 투수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시즌 5승을 달성했다. 김병현은 26일 새벽 콜로라도주 덴버 쿼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인턴리구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빼앗는 위력적인 투구를 펼치며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3-0으로 앞선 7회말 타석에서 호트레 피에드라로 교체됐다.

경기는 그대로 끝나 김병현은 지난 20일

오랜전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4승 및 통산 40승째를 따낸 데 이어 올 처음으로 연승을 달성했다. 2경기에서 13이닝 연속 무실점. 또 텍사스전 통산 첫 선발 등판(총 7번 등판)에서 귀중한 첫 승을 낚아내며 상대 전적도 1승2패로 좋아졌다.

시즌 성적은 5승4패, 평균자책점은 4.84에서 4.31로 크게 낮았다. 콜로라도 타선은 2회 포수 요르빗 토레알바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선취한 뒤 3회에도 1점을 보태 2-0으로 앞섰다. 5회에는 연속 3루타 2방으로 3-0으로 달아났다.

# 광주대 펜싱 ‘전국 최강’

## 사브르 여자 ‘금’ 남 ‘은’ 획득 전국대학선수권

광주대가 창단 7개월만에 제8회 대학단체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대는 26일 한국체대에서 열린 여대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강보미·박미리·황혜련 조가 한국체대를 45대43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사브르 단체전에는 후보까지 4명이 출전해야 하는데 올 일화 선수 3명밖에 안된 광주대는 열악한 환경을 딛고 금메달을 따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광주대는 남대부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김문호·박규화·김대선·오명익이 조를 이뤄 인천대와 격돌했으나 41대45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기보배 (광주여대) ‘금빛 명종’

### 개인전 우승...단체전 2위 대통령기 남녀양궁

기보배(광주여대 1)가 제24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보배는 26일 울산 문수양궁장에서 열린 여대 개인전 종합에서 1천356점을 쏘아 1점을 보태 2-0으로 앞섰다. 5회에는 연속 3루타 2방으로 3-0으로 달아났다.

머물렀다. 기보배 이특영(광주체고 2)도 라커브 부문 개인전 여자 고등부 결승에서 김송이(대전체고)를 112-107로 누르고 정상에 올라 국가대표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이특영은 여고 개인전 종합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며 단체전에서도 조소현·최미나·홍수남과 조를 이뤄 동메달을 따냈다.

이호준(호남대 2년)은 남대 개인전 종합에서 1천330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단체전에서 호남대는 3천930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재경 (조선대) 대학검도 우승

## 연장 점전 끝 승리

이재경(조선대 4)이 제5회 회장기 전국 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재경은 지난 25일 서울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개인전 결승에서 계명대 김철근을 맞아 연장점전 끝에 머리 한란치기로 득점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재경은 준결승에서 국민대 김영호를 머리 한란치기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 회장기 전국검도대회 2회대회부터 박상수(졸업), 3회 김동욱(졸업), 4회 정운선(조선대 4년) 등 개인전에서 4연패를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한편 조선대는 단체전에서 아쉽게 3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피터팬으로 불러주세요” KIA, 한기주 별명 확정

KIA 타이거즈는 “신인투수 한기주(19)의 별명을 ‘피터팬’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별명 공모는 지난달 10일~25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된 4천304건 가운데 구단 내 눈의를 거쳐 짧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피터팬’으로 최종 결정됐다. 별명 공모 행사에는 ‘토네이도’, ‘언터처블’, ‘아우토반’, ‘빛고를 꼭꼭기’, ‘마운드의



연인’ 등 다양한 표현이 나왔다.

KIA는 ‘피터팬’으로 응모한 김성수씨 등 당첨자 6명에게 디지털카메라, MP3 등 선물을 주고 팬 미팅에 초대해 기념 사진도 촬영할 계획이다.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인 10억원을 받고 프로에 데뷔한 한기주는 올 시즌 4승7패, 방어율 3.98을 기록하며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